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 농지은행사업에 1490억 투입

✎ 이원재 기자 | ☎ 승인 2025.03.04

청년농 농지 매입 부담 덜어
고령 농업인 노후 안정 기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청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가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1490억 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농지은행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영농 조기 정착과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이다. 올해 1490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별로는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 1094억 원 △경영희생지원 농지 매입사업 231억 원 △선임대 후매도사업 23억 원 △농지 규모화 사업 80억 원 △과원 규모화 사업 37억 원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22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청년 농업인의 농지 매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지매매사업 지원 단가를 기존 m²당 2만 6700원에서 44.2% 인상한 m²당 3만 8500원으로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공사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매입한 뒤 장기 임대하고, 원리금 상환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선임대 후매도' 사업에도 23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새롭게 도입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도 22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 농업인 등에게 매도·이양하면 최대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와 누리집(fbo.or.kr), 또는 거주 지역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원재 기자



이원재 기자 sicha@idomin.com